

#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서 초대형 진흙가마 나왔다

### 고려초 가마 불창시설도 첫 확인...“한국청자 발생지일 가능성 커”

### 중국 월주요 비색청자 구현한 당대 최고급 청자편 다량 출토 눈길

고려 초기 청자 생산의 거점인 해남군 화원면 청자요지에서 초대형 진흙가마(토축요)가 발굴됐다.

특히 이 가마에는 초기 청자 가마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불창시설이 확인돼 한국 청자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부터 화원면 신덕리 청자요지 유적 성격 규명에 초점을 맞춰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한반도 남서부지방 최대의 진흙가마(토축요)를 발견했다. 또 중국 월주요의 비색(秘色) 청자를 구현한 최고급 청자편이 다량 출토됐다.

한반도 남서부지역 초기 청자가마는 길이 약 20m 이내의 소규모 토축요로 알려졌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약 45m에 달하는 가마가 발견됐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사된 남서부지역 진흙가마 중 최대 규모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초기 청자는 굵 짙음이 매우 단정하고 중국 월주요 청자와 유사한 올리브그린의 색상을 띠고 있다.

월주요의 비색 청자를 구현한 당대 최고급 청자도 강진보다 빠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남군은 평가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더 주목되는 점은 가마 내부에 약 2.5m 간격으로 석재를 세운 불창시설이

고려 청자가마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불창시설은 오희가마(등요) 내부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둥을 설치한 시설로 고급 비색청자 구현을 위해 조성된 옛 선조들의 최첨단 기술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금까지 초기 청자 가마의 벽돌가마(전축요)와 진흙가마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초기 청자가마의 구조와 계통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변남주 국민대 한국섬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발굴조사의 가장 큰 학술적 의미는 화원 청자요지에 국내 초기청자 가마에서 발견 예가 없는 불창시설까지 갖춘 점 등을 볼 때 ‘한국청자 발생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남부지역에 속한 해남의 초기 청자 가마들은 백자도 생산한 중부지역의 초기 청자 가마와 계통이 달라 중국에서 직접 도입됐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당나라 말기부터 생산된 중국식 청자 찻잔과 문양이 없는 청자를 대량 생산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청자(자기) 발생 시기와 장소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어 견해가 다양하다.

그동안 국내 청자 발생은 중부지역 시흥 방산동 벽돌가마 등에서 흙가마로 전환되었음을 근거



해남 화원 청자요지서 출토된 최고급 청자편.

로 남부지역의 흙가마에서 생산된 초기청자들은 벽돌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보다 낫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해남에서 불창시설을 갖춘 초대형 흙가마가 최초로 발견되면서 중부지역 벽돌가마에서 비색의 청자 생산에 적합한 남부지역의 흙가마 기술을 거꾸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변 교수를 설명했다.

해남군은 10일 화원면 청자요지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연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 지역인 강진·부안과 한국 고려 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고려청자의 진정성을 회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고려 초기 청자 생산의 거점인 화원면 청자요지에서 초대형 진흙가마(토축요)를 발굴했다.

# e-모빌리티 타고 미래로 달린다

### 영광군, 스포티움서 퍼레이드 펼쳐...기업·대학과 간담회 개최도

영광군이 'e-모빌리티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모빌리티 시티' 홍보를 위해 퍼레이드를 벌이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2020 e-모빌리티 엑스포'를 대신해 영광군 공무원들이 지난 4일 영광스포티움에서 'e-모빌리티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준성 군수와 최은영 군의회 의장을 필두로 직원들이 e-모빌리티를 타고 전용도로를 달렸다. 퍼레이드엔 엑스포 마스코트인 모모와 티티, 그리고 개구리맨 김준성 씨가 함께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쓰임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퍼레이드를 계기로 PM(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운동이 확산돼 영광군이 e-모빌리티 시티를 넘

어 세계적인 e-모빌리티의 심장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서 지난 3일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영광 e-모빌리티 기업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e-모빌리티 기업 및 유관기관과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동브이자동차, 모토벨로, 에이치비, 캠퍼스, 인셀 등 e-모빌리티기업 5개사와 동강대학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모빌리티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각종 규제 개선,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시책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련 기업들은 수출 규제 완화, 지원보조금 확대,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호소했다.

김준성 군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 것”이라며 “기



김준성 영광군수와 직원들이 지난 4일 영광스포티움에서 'e-모빌리티 퍼레이드'를 펼쳤다.

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동강대학교 캠퍼스 유치 및 영광공고 학과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신안군 2911ha...전남 최고

신안군은 지난달 말 기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2911ha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2017년 522ha에 불과했던 신안군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3년이 지난 현재 6배로 늘어났다. 전체 경지면적 1만9505ha 중 4411ha(22.6%)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신안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대부분을 벼가 차지하고 있어 품목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 해부터 단호박, 고구마, 무화과, 꾸지뽕 등의 농가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토록 유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과수와 채소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안심 먹거리 생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